

만해 스님 유훈 기리는 학술·문화 행사 ‘풍성’ 선학원, 6월 학술·문화제 잇달아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학술 문화행사가 6월 내내 열린다.

선학원 산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사장·소장 법진)은 6월 8일 오후 2시 삼각산 정법사에서 만해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만해 한용운과 <불교대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제 선학원 교무 인환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前 동국대 교수)을 좌장으로, 김경집 교수(진각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1주제는 강연으로 2~3주제는 학술발표와 논평으로 이뤄진다.

1주제는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이 ‘불교대전’에 나타난 만해사상’을 강연하며, 2~3주제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만해 용운선사 <불교대전>의 교의적 성격’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대전>의 자료적 성격과 간행의의-<불교성전>과의 관계성 검토를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와 제점숙 동서대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선학원은 6월 1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만해예술제를, 6월 29일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는 만해추모제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백제가 日에 전한 것은 불교만이 아닙니다”

오하시 와세다대 명예교수 반가사유상展 기념 초청강연

“일본도 남북조시대의 중국과 계속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보다 불교는 늦게 받아들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제인은 머리가 좋았지만, 일본인은 머리가 나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일본은 한역(漢譯)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안됐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당시 백제와 일본은 고등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일본 불교미술사 석학인 오하시 가즈아키(大橋一章, 사진)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5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제 조불공(造佛工)의 도일(渡日)과 일본 불교 미술의 성립’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회를 통해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은 단순히 불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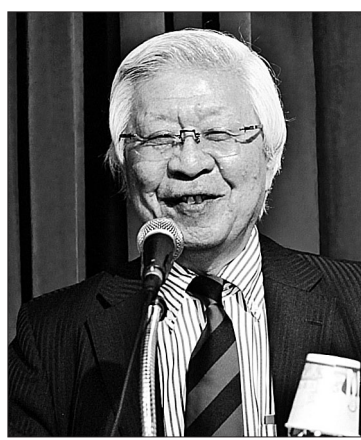
오하시 교수는 가장 먼저 불교의 전래 과정을 살폈다. 오하시 교수에 따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문자를 통

해 중국에 전해졌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2000년은 불교가 성행하지 못했지만, 경전의 번역이 축적·유통되면서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불교는 융성하게 됐다는 게 오하시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북위의 수도 낙양에는 다수의 불교 사원이 존재했으며, 남조에서도 경쟁적으로 불교 사원이 만들어졌다.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불교 사상과 문화는 만개한 것이다.

오하시 교수는 “당시 선진국은 중국이었고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했다”면서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한역 경전을 이해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자 문명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고구려와 백제는 사신들의 교류로 한자 문명을 빠르게 도입하고 적응해 갔고,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에 불교가 전래된다. 하지만 일본에



불교, 당시 선진 문명 총아 이해 위해서는 한자가 필수 백제, 日에 불교 전래 위해 사신 통해 한자 교육·전수

日 불교 미술도 같은 양상 백제 佛母·木장인들 넘어가 견습공 두고 10년 간 교육 왕흥사, 飛鳥寺 건립과 관계

불교가 전해진 것은 백제에 의해 538년 에 이르러서다. 불교 전래에 있어서 150여 년의 차이는 한자 문명의 이해도가 결정했다는 게 오하시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오하시 교수는 “일본에 불교를 전한 것은 백제”라면서 “백제는 불교를 전하기에 앞서 한자 문명을 전했다”고 말했다.

실제, 백제의 오경박사(五經博士, 경서에 능통한 학자)를 513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일본으로 보내 한자를 교육시켰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538년이 돼서야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오하시 교수는 “백제는 25년간 8차례 오경박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한문 경전에 익숙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불교를 일본에 전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오하시 교수는 일본 불교미술의 성립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봤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백제의 왕흥사와 아스카테라(飛鳥寺)의 관계다. 발굴된 왕흥사 사리장엄구에 나타난 글을 살펴보면 왕흥사의 건립시기가 577년으로 명시돼

있다. 백제에서 조불공(造佛工, 불상을 만드는 장인)과 조사공(造寺工, 사찰을 만드는 장인)이 일본으로 간 것도 577년으로, 꼭 10년 뒤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 아스카테라 건립이 발원된다.

오하시 교수는 “백제의 장인들은 금동불의 주조기술과 사찰 건립 기술을 일본에 전했다”며 “장인들은 10~15명의 일본인 견습공을 두고 10여 년간 기술을 전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흥사와 아스카테라는 여러 모로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왕흥사 건립 불사의 장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왔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강연은 오는 6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기획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6월 3일에는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초청해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국보 주구사 목조반가사유상’이라는 주제로 2차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우수학술도서에 불교 학술서 10종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결과 발표 ‘조선 후기 불교동향사 연구’ 등 불교 교리·동향 연구 등 다채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원장 권숙일, 이하 학술원)이 선정하는 우수 학술도서에 불교 관련 학술서 10종이 포함됐다.

학술원은 5월 12일 ‘2016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우수 학술도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기초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인문학은 74종, 사회과학 100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7종이 각각 선정됐다. 이중 불서는 △<조선 후기 불교동향사 연구>(오경후 저) △<불교 인식론 연구>(도사키 히로마사 저, 박인성 역) △<구사론 계몽·근품·피아품>(이종철 역주) △<보리수 가지치기:비판 불교를 둘러싼 폭풍>(제이미 허바드 외, 류제동 역) △<불교 원자설: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만남>(윤영호 저) △<종용록>(서지현 역) △<불교와 한글: 글로컬리티의 문화사>(김기종 저) △<동환변문교주1-6>(전홍철 외 역) △<나츠메 소세



대한민국 학술원의 올해 우수 학술도서 중 불교 관련 학술서 10종. 불교 교리부터 역사, 문학, 동향 연구까지 다채롭다.

키의 선(禪)과 그림(畵)(진명순 저) △<붓다와 함께 쓰는 시론:근대시론을 넘어하기 위해>(정효구 저) 등 10종이 이름을 올렸다. 9종은 인문학 분야이며, 한국학 분야에는 1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불교 학술도서의 주제는 불교 교리부터 역사, 동향 연구, 문학까지 다채롭다. 오경후 동국대 연구교

수의 <조선 후기 불교동향사 연구>는 선조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교탄압의 근원였던 현종의 불교정책을 통해 불교가 지닌 종교적 가치와 불교계의 기여를 살폈으며, 제이미 허바드의 저서를 류제동이 번역한 <보리수 가지치기>는 세계 불교학과 인문학계의 병렬을 고발하고 있다.

전홍철 우석대 교수 등이 번역한 <동환변문교주 1-6>는 중국 불교 문학과 한국 판소리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동환변문집>을 세계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전홍철 교수팀(전홍철·정병윤·정광훈)이 한국과 중국 양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10여 년에 걸친 작업의 결실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 차문화의 경전 <다신전> 강좌 열린다 미붓아카데미, 6월 14일부터

지난해 서양 철학과 불교 사상의 조우를 다루는 기획 강좌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이끌었던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중)가 오는 6월 14일부터 차 인문강의 <다신전(茶神傳)> 강좌를 시작한다.

미붓아카데미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강좌는 우리나라의 전통차 분야와 관련된 본격적인 ‘차 인문학 강좌’이다. 차 인문학의 정전(正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의선사의 <다신전>은 차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망라한 최고의 다서(茶書)라고 할 수 있다.

차 인문학 첫 강의인 만큼 감사도 눈길을 끈다. 미붓아카데미 <다신전> 강좌에는 차 이론 전문가인 강순형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다신전>의 강의 시간은 6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까지이며, 강의 장소는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불교평론 세미나실이다.

한편, 미붓아카데미는 앞으로 <동다송>, <다경> 등 다양한 다서 읽기 강좌를 기획할 예정이다. (010)5575-7010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법당앰프 설치비용
 -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마이크 1개
 -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쿠즈넥, 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 V-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소,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소원을 이루는 기도

(진언 주력 명상 및 광명사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업보(報)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자성을 밝히는 “지광불”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까흠 진언 명상 기도”를 통해서 액운을 피하고, 타고난 나쁜 운명을 극복하는 수련법으로 자신의 삶에 행복과 건강,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기도스님 인해, 덕후 덕비 합창

- 기도일정 : 매주 주말 (1박 2일)
-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 바꾸어야 합니다.
- ‘옴·까·흠’ 3자 진언호흡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뚫립니다.
- 문의 : 대광명선원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